



동서양 문화의 융광로

칼크니쉬 민속그룹

투르크 예술 광주서 만난다

10일 문화전당 극장2

터키·투르크메니스탄 공연

무료 관람·홈피서 사전 예약

‘동서양 문화 융광로’ 투르크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자리잡으며 양측이 융합된 독특한 문화예술을 꽃피웠다. 알타이어권, 민속신앙, 숏대 문화, 씨름 등 우리 민족과도 많은 유사성과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는 친숙한 곳이기도 하다.

광주에서 투르크 예술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투르크 권 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10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행사의 하나로 광주를 비롯한 김해 등에서도 함께 열린다.

터키에서는 부르한 외잘(Burhan Ocal)과 이스탄불 오리엔탈 앙상블이 참여한다.

부르한 외잘은 다르부카(컵 모양처럼 생긴 터키 전통 북)와 함께 세계를 누비는 연주자다. 몬트리올, 시카고, 로마, 베를린 제2 페스티벌과 워드(World Of Music, Arts and Dance) 등 세계적 예술 축제에 정기적으로 초청될 정도로 터키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이다. 2007년 영국인 지휘자 하워드 그리피스,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콘체르토 알라 투르카 앨범을 내는 등 10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나톨리아, 트라키아, 발칸 반도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르부카로 들려줄 예정이다.



부르한 외잘

Music, Arts and Dance) 등 세계적 예술 축제에 정기적으로 초청될 정도로 터키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이다. 2007년 영국인 지휘자 하워드 그리피스, 취리히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콘체르토 알라 투르카 앨범을 내는 등 10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나톨리아, 트라키아, 발칸 반도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르부카로 들려줄 예정이다.

이스탄불 오리엔탈 앙상블은 유럽 최고 터키 집시밴드로 인정받는 단체로, 외잘과 함께 다양한 리듬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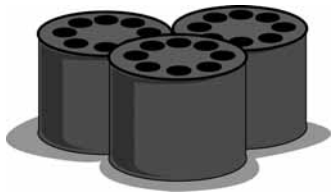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칼크니쉬 민속 그룹’(Turkmen Folk Group GALKYNYSH)과 바그쉬(BAGSHY·투르크메니스탄 전통 음악)가 찾아온다. 2008년 창단된 칼크니쉬 민속그룹은 투르크메니스탄 춤과 노래, 문화와 민속예술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 있다. 2010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통령령이 창의적인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투르크멘의 황금 시대’를 수상한 단체다.

바그쉬는 민속 음악과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말로 넓게는 가수이자 고대 서사시를 읽어주는 이야기꾼이다. 마치 우리나라 판소리처럼 바그쉬가 연주하는 음악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 바그쉬들은 두타르(dutar·두줄로 된 현악기)를 연주하며 강한 목소리와 웅혼한 선율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한다.

무료로 진행되며 축제 공식 홈페이지(www.turkicfest.kr)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2-3216-118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불우이웃에 ‘사랑의 연탄’ ‘별밭 가얏고’ 자선음악회



6일 빛고을시민문화회관

(사)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이사장 문명자) ‘사랑의 연탄드리기’ 일곱번째 정기공연이 6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 시무형문화제 제18호 가야금병창 보유자 문명자 선생과 제자로 구성된 예술단 ‘별밭 가얏고’가 참여한다.

가야금병창곡 ‘춘향을’을 만들어 호응을 얻었던 ‘별밭 가얏고’는 이번 공연에서 진도 씻김굿을 가야금병창곡으로 편곡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초가방석, 손국 처 올리기, 제석굿(성주야, 팔도강산, 지경다구기, 노적소리, 업소리), 닛 올리기, 길 님음으로 구성된다.

김혜진, 김다은, 송은지, 송란, 김혜인, 심세희, 서고은, 심가희, 박한솔, 모



혜운, 최수지 등 단원 28명이 무대에 오른다. 또 문명자 선생과 나빌레라예술단이 특별 출연한다.

예술감독은 문명자 선생이 맡았으며, 무대감독 박근태, 무용 한명선, 바라지·장고 허정승, 바라지·징 김주

원, 대금 김승호, 아쟁 박정진, 피리 김원근, 무용 배선주가 함께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공연을 통해 모은 성금으로 20가정에 각 300장씩 연탄을 전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스퀘어 10주년 기념음악회’ 피날레

8일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 공연



10주년을 맞은 유·스퀘어는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유·스퀘어 10주년 기념음악회’를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씨가 피날레 무대를 장식한다. 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뮌헨 국립음대 전임교수이자 유럽무대에서 더욱 활발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 이씨는 17년 앙상블 호흡을 자랑하는 피아니스트 티모 코스카넨과 함께 무대에 선다.

레퍼토리는 브람스의 ‘바이올린 스케르초 c단조’와 ‘소나타 2번’, ‘소나타 3번’, 비에니아프스키의 ‘폴로네이즈’ 등이다.

이씨는 15세에 유럽으로 건너가 1985년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1988년에는 ARD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뒀다. 10년 넘게 유럽무대에서 동양인 여성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어 핀란드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교수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는 독일 명문 음악대학인 뮌헨 국립음대 교수, 메뉴인 아카데미 초빙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10주년 기념 음악회에는 최현호, 김영주, 이한나, 문현욱, 주민혁, 공병우 씨 등이 참여했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62-360-8437, 8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성찰을 통한 상상력의 세계...성백선 시인 ‘그라데이션’ 펴내

성찰을 매개로 다양한 상상력의 세계를 보여주는 시집이 출간됐다.

성백선 시인이 펴낸 ‘그라데이션’(시산 맥)은 상상력의 진폭을 보여주는 50여 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그라데이션(gradation)’은 “색칠을 할 때 한쪽은 진하게 칠하고 다른 쪽으로 갈수록 점점 옅고 흐리게 칠하는 일”을 지칭하는 미술 용어다.

시속에서 그라데이션은 외연적인 색조

의 변화뿐 아니라 화자의 심리와 상상력의 충위를 드러내는 효과로 확장된다. 표제시 ‘그라데이션’에는 시인이 지향하는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나 있다.

“우수수 쏟아지는 햇살, 잎맥의 실타줄 터뜨리며/ 붉은 나무들이 일제히 연못에 뛰어든다/ 새가 구름 한 조각 물고 물숲으로 날아온다/ 번지는 불살은 생각을 층층을 우려낸다...”

이처럼 시에는 화자의 마음이 대상에 이입



때, 점진적으로 변하는 색조로 표현돼 있다. 다른 작품들도 ‘그라데이션’이라는 제목과 연관될 만큼 화자의 언어는 섬세하면서도 서정적이다. 해설을 쓴 박남희 시인은 “그의 언어는 달콤하고 관능적인 바나나가 되어 그것을 탐하는 시의 바람난 입술에 크게 한 입 봉팅 베어 먹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르스필과 함께하는 김태현의 클래식여행 - 베토벤을 생각하다

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사)선율(대표 김태현)이 7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아르스필하모니와 함께하는 김태현의 클래식여행-베토벤을 생각하다’ 공연을 연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공연장 상주 단체운영사업 기획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선율은 이번 무대에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피아노협주곡 3번’, ‘교향곡 7번’ 등을 들려준다.

에그몬트 서곡은 베토벤 서곡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며 ‘교향곡 7번’은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에 삽입돼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곡이다. 특히 아름다운 느낌의 2악장은 깊은 울림을 준다.

‘피아노 협주곡 3번’은 베토벤의

유일한 단조 협주곡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선율 대표이자 지휘자인 김태현 광주대 교수가 협연자로 참여한다.

이번 연주회에는 바리톤 김철웅, 소프라노 김예령, 바이올린 김도연, 피아노 박익현, 첼로 박효은 등이 함께한다. 선착순 무료 입장. 문의 062-670-7944, 794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솔향기맑은터.com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찜솥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양한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